

이 빠진 서가를 보며

황원구

연세대 교수·동양사학

언제부터인가, 책을 빌려주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책을 돌려주는 것이 다음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책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이 전해온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책이 귀했다. 옛날에는 더욱 그러했다. 옛적에는 목판본이건 활자본이건간에 기백권을 찍어내면 고작이었다. 독서인층이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수량으로서는 태부족이었다. 이에 책을 소중하게 보존했다.

따라서 책을 구해 보자면 빌려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사본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필사본은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지않은 오자가 불가피하게 되어 정성으로서 찍어낸 판본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또 책이 워낙 귀하다 보니 골동적인 성격까지도 띠게 되어서 오래된 판본이면 부르는 게 값이 되었다. 여기에서 책은 보물과도 다를 바 없는 값진 것이 되었다. 어떤 장서가이자 학자의 장서 중에 상당량이 빌려온 책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소실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선비는 책을 상품화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전통에서 온 실화이기도 하다.

여하간 책을 필사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청사진으로 복사하든지 사진으로 찍어서 이용하게 되었다. 요사이에는 제록스 복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하기가 책을 읽는 데는 필사하면서 읽는 일이 가장 좋고 요약하면서 읽으면 옆줄 치면서 읽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복사하기 마련이다. 공부하는 사람이면 여러 종류의 복사물이 많을 줄 안다. 제록스 복사가 화학작용으로 복사되기에, 공기와 접촉하면 얼마나 보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손쉬운 방법이라 선호하고 있다.

요즈음에는 책의 홍수시대이다. 책방에 들르면 놀랄 정도로 신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옛날의 희귀본도 영인본으로 많이 출판되고 있다. 옛날 어떤 학자가 “오천권의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이 방에 들어올 수 없다”(不讀五千券書者不入比室)는 현관을 문앞에 걸어 놓았었다는데, 그 무렵의 오천권이면 오늘날 웬만한 책 이백권도 안된다. 매일 읽는 일간신문 한부의 분량이면 옛날 책 다섯권에 해당한다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책은 소중한 것이다. 선인들의 지혜와 경륜이 책속에서 전해오고 있기에 그러하다. “옛사람의 책을 읽으면 천하의 어떤 일이고간에 해낼 수 있다”(古人書無不讀天下事皆可爲)고까지 일컬어온 것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독서의 보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책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다. 문화전통이 유구한 민족일수록 이러한 독서의 보람을 더욱 잘 알고 있다.

나는 청사진본·사진첩본·제록스물과 많은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다. 비록 누렇게 바랜 것들이지만 나에게게는 소중한 것들이다. 그런가 하면 단행본의 전공서적도 오천책이나 소장하고 있다. 책욕심이 많아서 무리하게 장만한 장서이다. 그런데 이런 책들이 남의 손에 많이 나가 있다. 책을 빌려줄 때는 빠른 시일 안에 돌려주기를 입버릇처럼 다짐받지만, 서가를 빠져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책이 많고 보면, 책을 빌려주는 일이 가장 어리석다는 옛말을 상기하면서, 느긋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반환을 독촉하는 또다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는 심사인지도 모를 일이다.

몸이 늙으면 이가 빠지기 마련이듯이 책이 많고 귀한 책이 적지 않으면, 이빠진 서가가 어느 서재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리석음은 나만이 아닐 줄 안다. 서재에서 빠져나간 책들이 보람있는 결과가 되는 데 많은 공헌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빠진 서가를 세삼스럽게 응시해 본다.

뉴스	2	북한 저작권교섭 실효성 논란
표지인물	4	학술출판 외길 걸어온 꽃꽂이 '큰어른' 인촌상 출판언론 부문 수상한 일조각 한만년사장
집중취재	6	교육제도 변혁으로 참고서시장 지각변동 대입 수능시험 실시 등으로 기존 업계판도 재편 조짐
초점	8	마케팅 전략차원 시장조사 본격화한다 경험이나 감에 의존은 옛말... 여론조사 등 이용하기도
서평	10	송광성 「미군점령 4년사」— 강준식 김민남 외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 채 백
	11	셀츠버그 「화학의 발자취」— 이필렬 과학기자모임 「신한국과학기술을 위한...」— 박방주
	12	민만식 외 「중남미사」— 김현창 셀던 「무대예술론」— 유민영
	13	이충섭 「한국인의 눈에 비친 카프카」— 한석중 한승원 「새터말 사람들」— 박기동
확대서평	14	카오스이론은 과연 과학의 혁명인가 제임스 글릭크 지음 「카오스」 최종덕 / 임경순 / 김승환
출판화제	16	서점가에 태평양 파도 높게 인다 동북아지역 주도권 강조한 미래예측서들
	17	기획력 배가 겨냥한 기업경영 이론서들 불황극복 위한 발상의 전환에 중점
	18	북한출신 전향자 수기 독자들 관심끈다 일부 도서 베스트셀러 부각...북한의 일상생활 다뤄
이 책을 말한다	19	박물학적 과학여행기의 위대한 고전 — 장순근 찰스 다윈 지음 「비글호 항해기」
이 책 그 사람	20	「한국속담활용사전」 낸 김도환교수 「겉옷과 속옷」 낸 원재길씨
	21	「영사부적」 낸 정명철씨 「나는 다만 하고싶지...」 낸 김정일씨
해외출판	22	오디오북 출간경쟁 뜨겁게 달아오른다 — 유은영 어린이책 전문서점과 북클럽도 성황
세계의 책	24	서로 다른 관점의 인류의 조상 연구 — 배병삼 네안데르탈인 연구서 잇달아 선보이며 관심끌어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 /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안내